

순수 주객이 되어 '나의 고전'으로

일상에서 해방되어 유연한 시공을 펼치는 고전과의 놀이 <마지막회>

이광주

인제대 명예교수·서양사

“아름다운 것은 세가지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졌다. 상류계층은 아름다운 예절을, 농민은 아름다운 이야기와 신앙을 놓고, 예술가는 신의 배려에 의해 앞선 정신을 물려받아 그밖의 모든 것을 만들어냈다.”

고전 작품을 맞이할 때면 19세기 말의 상징자인 예이츠의 이 아름다운 구절이 자주 떠오른다. 고전 작가란 파르나소스산의 정기를 받아 인간 세상이라는 광맥에서 금강석·비취·에메랄드 등 보석을 파내는 광부요, 더없이 매혹적인 베·무명·비단을 짜내는 피륙의 장인일까. 누군가는 근대 소설에서 사랑을 배웠다고 했지만 우리들은 고전 품에서 더없이 많은, 참으로 많은 혜택을 받는다.

고전, 그 영원한 스승

인류가 만들어낸 것 중 가장 귀한 창조물인 서적, 서적중의 서적인 고전. '고전'이란 무엇인가. '고전(classic)'의 원어인 라틴어의 'classicus'는 원래 고대 로마시대에 있어 시민중의 최상급인 '제1급의 classici' 형용사로서 쓰였다. 그러면서 차차 '제1급의' 작가 및 '모범적' 문학작품에 비유되고 그것을 지칭하게 되었다.

근대적 문예비평은 '고전' 찬미에서 비롯된 듯하다. 최초의 미술사가인 빙켄만은 북방 고딕양식이나 그 시대의 바로크풍을 혐오하여 고전 그리스 예술의 상징인 파르테논신전(건축) 속에 '고귀한 단순성과 위대한 정밀(靜謐)'을 보았으며 고전적 인간 고틀라가 '병적인' 낭만주의에 대해 고전주의를 '건강한 것'으로 찬탄하였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대는 아는가, 레몬 꽃이 피는 나라 ...” 고틀라의 시 <미농>은 태양이 빛나는 이탈리아를 향한 알프스 이북 사람들의 동경을 넘어, 아폴론적 그리스-로마의 고전(양식)에 대한 유럽적 갈망의 표현이 아니었던가.

문학에 있어 '고전'이란 무엇일까.

19세기 프랑스의 문학평론가 샹트 부브에 의하면 고전작가란 '자기의 사상, 관찰 내지 창의를 어떤 형태건 그 자체로 넓고 크며 고상하고 생각이 깊고 건전하고

고전작품은 대가림과도 같다. 우리는 많은 길을 지나 저마다의 몸짓으로 그에 다다른다. 나도 책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과 마찬가지로 '나의 고전'을 곁에 두고 있다. 나의 틀레에서 펼쳐지는 고전과의 한때는 나에게 극상의 '놀이' 시간이다. 이제 교단을 물러난 삶의 가을 속에서 순수한 주객(主客)이 되어 '나의 고전'에 들어가는 것이 최대의 바람이다.



단테의 <신곡>(위).
스위프트의 <걸리버여행기>(아래).
셰익스피어의 <제1판 2절본>(가운데).

아름다운 형식 아래 표현한' 작가를 말한다. 고귀한 이데아는 아름답게 단장되어야 하였으니 투명하고 아름다운 문체가 무엇보다도 요구되었다. 다시 샹트 부브의 말을 들어 보자. “(고전작가란) 중용을 유지하고 정확하고 양식이 있으며 우아하고 언제나 명석한, 항시 고귀한 정열을 지니고 부드러운 외형에 쌓인 강한 힘을 지닌 (문체의) 작가이다.”

샹트 부브가 문학작품의 '모범' 즉 고전으로서 빙켄만이나 고틀라와 더불어 그리스-로마의 '제1급의' 작품을 지목하였으리라는 것은 쉽게 짐작이 간다.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는 어릴 때 자장가처럼 어머니가 낭송해 주는 호메로스의 서사시를 들으며 잠들었다고 술회한 바, 고전 교육 중심인 영국의 퍼블릭 스쿨, 프랑스의 리세, 독일의 김나지움에서 보듯이 호메로스와 소포클레스, 키케로와 베르길리우스는 유럽 문명권의 영원한 텍스트요, 스승이었다.

일대 그림 두루마리와 같은 그 세계

오늘날까지도 서적 애호가들의 보전(寶典)으로서 애독되는 14세기 영국 드 버리의 <필로비블론>(1345)의 간행은 유럽에 있어 문자와 서적이 '하나님의

것'에서부터 인간의, 그리고 개인의 것으로 옮겨졌음을 시사한다.

사실 14세기 중엽에 들어서면서 서적은 개인의 기호품이 되고 수도원의 사본실과는 판이한 개인적 장서와 서재가 출현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문자와 서적이 그 주술성(呪術性)에서부터 풀려나 인간적인 것이 되었음을 또한 밝혀준다. 이제 '사람다움(humanité)'이 작품의 주제가 되었다.

단테의 <신곡>(1307)을 비롯하여 페트라르카의 저작, 보카치오의 <데카메론>, 비욘의 시작품 및 초서의 <켄터버리 이야기>는 개인과 세계의 발견'의 세기를 알려주는 대표적 작품이다. 그런데 특기할 것은 이들 작품이 그간 라틴어에 대비되며 '속어(俗語)'로서 천대받은 각국의 모국어로 씌어졌다는 사실이다. <데카메론>은 출판되자 곧 독어·불어·스페인어로 번역되었다.

성서와 교부(敎父)들의 저작, 그레코-로만의 라틴어 고전과 구별되는 '제3의 서적'인 모국어 ('국어'라는 말은 아직 없었다) 고전은 '국민' 문학이라는 관념을 비로소 뿌리내리게 하였다.

15세기 중엽 구텐베르크 이후 고전은 당연히 그 독자층을 크게 넓혔다. 16세기

중고개혁기의 베스트셀러는 루터의 성서와 당시 유럽 최고의 지성이던 에라스무스의 <대화집> 및 <치우신 예찬>이다. 그것들은 금서이면서도 50년간 몇십만부 인쇄되었다. 한편 프랑스 르네상스 최대의 작가 라블레의 <팡타그뤼엘>도 16세기를 통해 10만부 이상 인쇄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서적이란 바로 희귀본이요, 문맹률이 전인구의 근 90%이던 당시의 10만부는 오늘날의 1백만부를 넘지 못한다. 그밖에 같은 세기의 대표적 저작은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몽테뉴의 <에세이>다.

오늘날 '고전'으로 꼽히는 앞의 작품들은 그 당대에 있어 이미 세상의 주목을 받아, 그것을 화제에 올리고 서가에 꽂는 일이 교양인의 최대의 표식이요, '유행' 현상이었다. 교회 분열 이후의 유럽 공동체란 바로 고전을 공유하는 교양인의 공동체였다.

17세기 최고의 고전은 물론 셰익스피어의 작품이다. 문호가 작고하자 그의 전집이 몇가지 발견되었다. 그러나 약 1백년 동안이나 그것은 세인의 이목을 끌지 못하였다. 19세기 이후 일류 도서관의 필수 조건으로서, 구텐베르크의 <42행 성서>와 더불어 셰익스피어의

책과 파장

박시백

초판 전집 4점 완본의 구비가 요구된 사실, 그리고 오늘날 그의 작품이 번역되지 않은 문명국이 과연 있을까 하고 생각할 때, 아니 그보다도 '제1급'의 작품이 대체로 베스트셀러였던 시대에 있어 그리고 그 요건을 가장 잘 갖춘 셰익스피어의 작품이 1세기 동안이나 읽혀지지 않았다는 사실은 참으로 서적사(史)의 수수께끼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세르반테스의 《동키호테》, 밀턴의 《실락원》, 변연의 《천로역정》 그리고 테카르트의 《방법서설》, 파스칼의 《팡세》도 17세기의 고전으로 이름 높다.

18세기에 가장 많이 읽힌 작품은 데포의 《로빈슨 크루소》와 스위프트의 《걸리버여행기》. 특히 후자는 "대신들의 회의실에서부터 아동 방에 이르기까지" 상하노소를 가리지 않고 애독된 국민문학이었다.

부르크하르트는 루소의 《사회계약론》이 세계사를 그 출간 이전과 이후로 양분하였다고 말했으나 《법의 정신》, 《백과전서》, 《에밀》, 《고백》, 《칸디드》 등 '철학자'들의 저작은 세기의 메시지로서 문자를 모르는 민중들에게까지 전해졌다. 프랑수아혁명의 도래를 예고한 이 저작들은 모두가 금서 리스트에 오른 지하 출판물이었다. 그밖에 《국부론》, 《순수이성비판》 및 플랭클린의 《자서전》도 새시대의 도래를 알리는 세기의 서(書)이다. 괴테의 《파우스트》는 1808년에 초판이 선보여 19세기 최고의 고전이 된다.

한 시대와 한 국민의 취향과 감성, 고뇌와 바람, 정념과 욕망, 미의식과 사상의 표상인 일대 그림 두루마리와 같은 고전문학, 그것은 한 작가의 창작이기에 앞서 시대와 국민의 정체성의 표현이요, 한 문명권의 가장 소중한 창조물이다. 우리들이 한 작품을 통해 시대의 정신을, 한 국민의 자화상을 그리고 한 문명의 실체를 독해할 수 있음은 바로 여기에 있다.

문자를 지닌 국민은 저마다 그들 자신의 고전을 지닌다. 그것이 진정 고전임에 틀림없다면 그것은 다른 국민에 의해서도 소중히 읽혀져 인류 유대와 지구 공동체의 창출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

고전작품이란 '카테드랄' 즉 대가람과도

같다. 우리는 많은 길을 지나 저마다의 몸짓으로 그에 다다른다.

대가람과 같은 '나의 고전'

나도 책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몇권의 '나의 고전'을 곁에 두고 있다. 20대 전후의 남독, 탐독이라는 서적 편력을 거쳐 최초로 표착(漂着)한 곳은 괴테의 《파우스트》, 전설적 미술사의 지적 탐욕과 악마 메피스토펠레스와의 계약, 그레첸과의 사랑 끝에 도달하는 '영원한 여성적인 것'의 구제, 《파우스트》의 세계는 바로 샤르트르 대성당의 코스몰로지 그것이다. 아침 저녁으로 고타 판(版)의 《파우스트》를 낭송하면서 지낸 그 시절은 나에게 있어 가장 풍요한 삶의 계절인 듯하다.

《파우스트》와 더불어 플라톤과 밀케가 20대 이래 나의 변함없는 고전이다. 이어서 부르크하르트와 호이징가에 끌리고 몽테뉴의 《에세이》, 하이데거의 《나무꾼 길》 그리고 발레리의 시와 평론 또한 오래전부터 나의 서적중의 서적이다.

헬레니즘 시대 의사는 독서를 공놀이나 산책에 대신하는 치료법의 하나로 권유하였다고 하지만, 일상성으로부터 해방된 유연한 시공을 나의 둘레에 펼쳐주는 그 고전들을 펼쳐드는 한때가 나에게 있어서는 극상의 '놀이' 시간이다. 10여년 전 큰 마음을 먹고 한여름 배운 《논어》도 그 이래 육우의 《다경》, 만포드의 《역사 속의 도시》 및 최순우의 《무량수전 배흘림 기둥에 기대어서》와 더불어 나의 고전의 서가에 꽂혀 있다.

대학강단의 오랜 교사생활은 서적을 가까이 하는 행운을 안겨 주면서도 어느덧 나는 서적이라는 포도주를 감정인이나 소말리에처럼 대하는 멧없는 습성을 지니게 되었다. 이제 교단을 물러난 삶의 가을 속에서 순수한 주객(酒客)이 되어 '나의 고전'에 돌아감은 지금 나의 최대 바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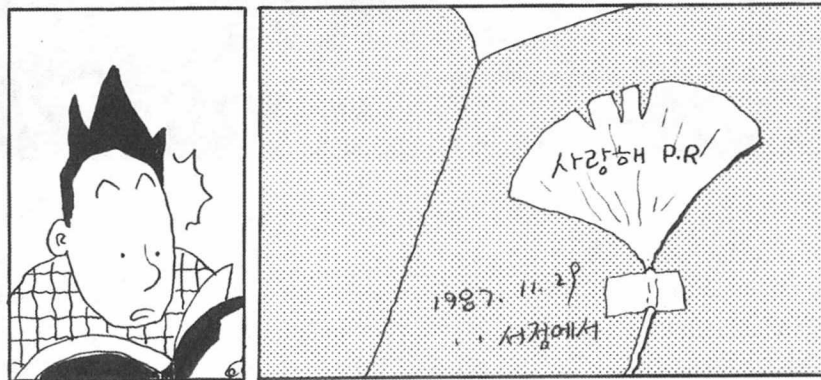
그간 1년 '서적' 이야기를 하는 즐거움을 안겨준 《출판저널》에 감사를 드리며 미지의 여러 독자들로부터의 전화도 큰 보람이었다. ❖



아내의 책들



아이구 이 유치한 제목좀 보라지. 우리 마누라님도 대단한 감상파였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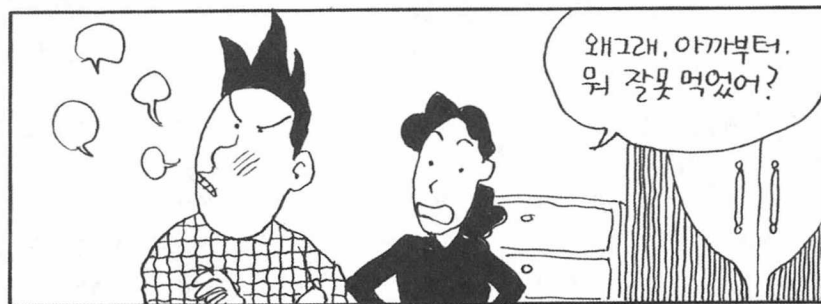
사랑해 P.R

1987. 11. 29
서점에서



사랑해 P.R? 87년이면 나랑 한창 연애할 때였잖아. P.R, P.R이라니...

쿠쿠쿠



왜그래, 아까부터. 뭐 잘못 먹었어?



뭐 P.R? 난또... 그래, 그때 내가 열렬히 사랑했던 사람의 이니셜이다. 어쩔래?

그 사람 별명이 '파리'였잖아 그것도 X파리.